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올해 미국 경제, 연준과 선거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놀라움 안겨
- NYT: 엘런 장관 “미국 디폴트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 필요”
- CNNBusiness: 공화당, 내년에 부채 한도를 처리해야...

[미국 금융]

- WSJ: 2000년대 이래 안 좋았던 신용 스프레드가 좋아질 수 있을까?
- WSJ: 내년이 대형 은행에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 WSJ: 투자자 “미 국채 전망 어둡다”

[오일 및 원자재]

- WSJ: 석유 선물 상승세
- FinanceYahoo: 코코아 시장 상승세... 공급 우려 때문
- WSJ: 미 셰일 가스, 트럼프의 석유 공약에 걸림돌이 되다

[글로벌 경제]

- JP모건: 미 대선 등 각국의 선거 결과와 여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스타링크에 대한 글로벌 저항감 약화된다
- FinanceYahoo: 구글은 어떻게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는가
- WSJ: IBM, 64억불 HashiCorp 인수안, 영국 반독점 조사 받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Economy Surprised Again in 2024 Despite Fed, Election Drama

올해 미국 경제, 연준과 선거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놀라움 안겨

- 미국 경제가 올해도 둔화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선의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노동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은 견조했다.
- IMF의 예상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G-7 국가 중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완벽한 상황은 아니다. 인플레이 개선이 약화되면서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여전히 채택하고 있다.
- 높은 차용 비용 때문에 주택과 제조업 분야가 활발하지 못하고 카드 빚과 모기지, 그리고 다른 용자를 지닌 소비자들의 연체율이 높은 상황이다.
- 그러나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으로 가계의 지출이 늘고 있다.

Bloomberg 기사

NYT: Yellen Warns 'Extraordinary Measures' Will Be Needed to Avoid Default**옐런 장관 “미국 디폴트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 필요”**

-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화요일 “연방의회가 빠르면 1월 14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정부 운영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다.
- 공화당은 다음 달부터 연방 의회 다수당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감세와 지출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없앨 것을 이미 요구했었다.
- 옐런 장관은 “정부가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의회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NYT 기사

CNNBusiness: Republicans will still have to deal with the debt ceiling in 2025. Here's what you need to know**공화당, 내년에 부채 한도를 처리해야...**

- 내년 1월 2일이 되면 미국은 그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부채 금액을 결정한다. 현재 국채 상환 등으로 인해 내년 미 부채 규모는 540억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만약 부채 한도에 이르면 수천만 명의 소셜 시큐리티, 2백만 명의 공무원 봉급, 140만 명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부채 한도를 1조5천억 달러 늘리는 대신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2조5천억 달러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연방 재무부가 내년 중반까지는 각종 지출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의원들이 연방 부채 한도를 처리할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N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Credit Spreads Haven't Looked This Good Since the 2000s. Can They Get Better?

2000년대 이래 안 좋았던 신용 스프레드가 좋아질 수 있을까?

- 미 기업들이 올해 유리한 자금 조달 환경을 활용하고,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향후 재정 필요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지출하기 위한 현금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다.
- 채권 발행이 내년에 활발할 수 있는지는 스프레드가 매력적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업들이 인수나 자본 투자를 위해 채권을 더 발행하면 발행량도 늘어날 수 있다.
-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차입 비용도 줄어든다. 그러나 연준이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금리 인하를 늦출 경우 상황이 변경되어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
- 그리고 채권 차입 비용은 항상 연준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연준은 이번 달에 “향후 금리 안하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Why 2025 Could Be a Great Year for Big Banks

내년이 대형 은행에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 연준은 최근 예상치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년에는 금리를 두차례만 올린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주식은 메도세를 보였다.
- 그러나 금리가 ‘오랫동안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은행에 호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대형 채권 기관을 포함하는 많은 비즈니스 라인에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 Visible Alpha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중간 평가치에 따르면 2021년 이래 처음으로 FICC를 제외한 모든 글로벌 상위 은행들이 모든 부문에서 매출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After Another Bad Year for Bonds, Investors Lose Faith in a Turnaround

투자자 “미 국채 전망 어둡다”

-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미 국채와 다른 형태의 우량 채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투자했었다.
-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현재도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은 국채를 매도하고 장기 채권 펀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 이 같은 매도세로 인해 국채 수익률은 최근 2년 중 높은 축에 속하고 있다.

- 하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관세 등 인플레이 유발 정책들은 사용할 경우 국제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및 원자재]

WSJ: Oil Futures Gain Ground in Early Trade
석유 선물 상승세

- 연말 석유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2025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7% 상승한 배럴당 71.11달러, 브렌트유는 0.3% 상승한 배럴당 74.40달러를 기록했다.
- FXPro 전략가 Alex Kuptsikevich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023년 초 이후 계속 67달러 선을 깨고 하락하려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FinanceYahoo: Cocoa market resumes gains as production concerns linger
코코아 시장 상승세... 공급 우려 때문

- 코코아 선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코아 선물은 지난주 뉴욕 선물이 15% 이상 하락해 10월 이후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 중이었다.
- 그러나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에서 코코아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른 공급 우려로 코코아 선물 가격이 상승했다.
- 시장 관계자들은 거래소 비축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 공급이 더욱 부족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 옥수수도 가격이 상승했다. 아르헨티나의 건조한 날씨로 인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FinanceYahoo 기사

WSJ: U.S. Shale Is Growing Old. That’s a Problem for Donald Trump’s Oil Plans.
미 셰일 가스, 트럼프의 석유 공약에 걸림돌이 되다

- 트럼프 당선인은 더 많은 석유 시추를 공약했었다. 하지만 셰일 가스 시장은 과거와 달라졌다. 10년 전만 해도 30개 회사가 서부 텍사스와 뉴멕시코 페름기 분지에서 셰일 가스를 생산했다.

- 기존 석유 회사들과 다른, 와일드캐터(wildcatters)들은 새로운 시추 기술과 수압 파쇄 기술로 셰일 붐을 일으켰었다.
- 하지만 이젠 와일드캐터들은 없다. 대신 거대 석유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석유 회사와 월스트리트의 관심사는 단순히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해 현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 있다.
- 또한 대부분의 미국 유전에선 충분히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오히려 원유 생산에 좋은 지점(sweet spot)들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
- Exxon Mobil의 Permian 지역 담당자 Richar Dealy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9백만 배럴에서 약 1천3백만 배럴로 급증했었다. 하지만 이젠 그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JP 모건: Beyond the ballot – Consequences of the 2024 elections 미 대선 등 각국의 선거 결과와 여파

-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선거 결과들은 포퓰리즘, 양극화, 지역 경제 분열, 민주주의 악화를 보이면서 기존 정치인들이 크게 물갈이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 올해 미국과 유럽의 선거 결과는 전쟁 중인 국가들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많은 국가들은 민주주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 변동성과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거버넌스가 약하다 보니 경제 성과가 낮아지고 있다.
- 정치적인 상황이 국가 역할의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재정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공공 지출과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정학적 경제가 분절화를 보이면서 무역과 군사 연합에서 블록화가 발생하고 무역 전쟁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망에 따른 규정 완화와 친사업 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랠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관세와 정책에 따른 리스크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다.
- 트럼프 2가 들어서면 높은 인플레이와 높은 장기 정책 금리,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다양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유럽 모델의 미래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긍정적인 경제 전환을 보여주고 있지만, 멕시코는 권력의 더 큰 집중화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 있다.
- 일본은 선거 전에 재정 정책 확대와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반면에 인도는 정치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나 통합을 관리하면서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 루마니아와 조지아와 같은 국가들은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쟁적인 선거들로 인한 국내 금융 리스크가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JP모건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Elon Musk's Political Influence Wears Down Global Resistance to Starlink 스타링크에 대한 글로벌 저항감 약화된다

-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글로벌 저항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만큼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선임 강사 Alex Capri는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인 미국 대통령의 귀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최근까지 많은 정부는 스타링크가 자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스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러한 규제를 없애고 스타링크의 글로벌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 SpaceX는 올해 가나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20개 이상의 국가를 고객으로 추가했다. SpaceX는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4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기존의 통신업자들을 밀어내고 아마존과 같은 라이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How Google proved it 'still has its mojo' in 2024 구글은 어떻게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는가

- 반독점법과 AI 경쟁으로 압박을 받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식이 이번 달 14% 상승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 양자 컴퓨터 칩 개발과 로보택시의 라이벌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독보적인 선두가 된 것이 2024년 마지막 주 알파벳 주가를 끌어올렸다.
- 올해 초만 해도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와의 AI 경쟁에서 힘겨운 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 하지만 최근 구글은 핵심 검색 제품인 AI Overviews를 개편해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해 내면서 구글이 업계 선두를 유지할 역량이 있음을 증명했다.
- 로보택시 시장에서도 라이벌인 GM 크루즈가 철수하면서 알파벳의 웨이모는 독보적인 선두 주자가 됐다. 이는 구글이 단순한 검색 회사 그 이상임을 보여준다.

FinanceYahoo 기사

WSJ: IBM's Planned \$6.4 Billion HashiCorp Takeover Faces U.K. Antitrust Scrutiny

IBM, 64억불 HashiCorp 인수안, 영국 반독점 조사 받아

- IBM이 64억 달러 규모의 HashiCorp를 인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의 반독점 기관이 해당 인수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규제 당국은 오늘 월요일, 1월 16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월 25일까지 거래를 승인할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IBM은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 확대를 위해 HashiCorp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HashiCorp에 주당 35달러의 현금을 지불할 예정이었다.

WSJ 기사

[보고서]

미국 경제 독주...올해 성장률 'G7 1위' 전망 "증시도 월가 전망치 훌쩍...S&P500 25% 상승"

연초 일각의 침체 우려와 달리 올해 미국 경제는 주요국 가운데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고 증시 랠리도 월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올려 2.8%로 제시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IMF의 성장률 전망치가 2%를 넘긴 곳은 미국이 유일하며 캐나다(1.3%), 프랑스·영국(각각 1.1%)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0.3%, 독일은 0%에 그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24. 12. 30. 오후 1:44

Email from KOCHAM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